

2019년도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 후기

한국암호포럼에서 시행한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은 2016년 처음 시작됐고 올해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암호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암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은 학부생 때 졸업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었던 친구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들었을 당시에는 대학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동아리를 운영해 본 적이 없었기에 해당 사업에 지원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교수님께서 2019년도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에 지원해보라고 하셨을 때는 매우 놀랐고 걱정이 됐었습니다. 암호에 관한 공부는 대학원에 들어와 처음 시작한 저로서는 암호 동아리에서는 어떤 주제를 갖고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조차 몰랐었고 무엇보다 동아리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에 암호동아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막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최근 보안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인 양자 컴퓨터 및 양자 내성 암호를 권해주셨고 동아리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차분한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동아리 운영 계획안을 잘 작성할 수 있었고 암호동아리 사업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에 합격한 후에 암호 동아리 홍보 부스 운영, 양자 공개 세미나 진행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동아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모집 당시에는 학부생이 양자 관련 컴퓨터 보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학부생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동아리 가입을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렇게 홍보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약 21명의 동아리원이 모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집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각자 공부할 분야와 팀원을 정하였고 공부한 내용은 동아리 공식 홈페이지에 글로 정리하고 매달 정기 세미나를 통해 공부했던 내용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으며 공부 외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양자 설문 조사, 국가암호공모전 참여, 양자 관련 유튜브 운영, 회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이와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에서 우수 동아리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라는 모임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일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되지는 않지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일들은 풀리게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동아리 초창기에는 양자를 주제로 한만큼 처음에는 동아리 회원 모두가 양자 컴퓨터, 양자 내성 암호 등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1명 모두 다 학습 수준과 학년이 달랐기 때문에 모두가 바로 양자를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각자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팀을 이뤄 양자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 관련 분야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암호 동아리를 통해 암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협력하며 목표를 이뤄나가는 모습 또한 배울 수 있어서 동아리를 운영했던 기간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귀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동아리장을 잘 참주하고 도와주며 열심히 활동했던 모든 동아리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교수님께 가장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04일 한성대학교 IT융합공학과 최승주